

13명 작가 개성 폭발 ‘소설집’을 만나다

광주전남소설가협회 동인지
18집 ‘온빛소설문학’ 펴내
문체·주제 등 다양...읽는 재미
28일 카페 꿈마서 북 토크

개성도, 문체도, 주제도 제각각인 다양한 소설을 만나
다.
창작의 뜻을 품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동인’이라 한다. 첫 발을 떼기는 쉽지만 지속적으로 함께 길을 간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보편적으로 ‘문학의 길’은 낭만적이지도, 아름답지도 않으며, 더더욱 큰 이윤이 남는 것도 아니다. 들인 시간과 공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결실이 초라할 때도 많다.

그럼에도 문학이 좋아서, 이 길이 아니면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없어서 창작의 길을 가는 이들이 있다. 함께 읽고, 쓰고, 책을 펴내며 서로의 성장을 견인하는 문학 동인이 그 주인공이다. 지역에서 소설을 쓰며 동인활동을 꾸려가고 있는 작가들이 최근 동인지작품집을 발간해 눈길을 끈다. 광주·전남소설가협회(회장 이진)가 동인지 18집 ‘온빛소설문학’ (심미안)을 펴냈다.

회원 13명의 단편이 수록된 이번 작품집은 저마다 다른 삶과 사유의 궤적을 가진 작가들의 소설이 수록돼 있다. 등단년도를 비롯해 등단 매체, 나이, 직업, 관심사는 상이하지만 소설에 대한 열정 하나로 곳곳이 창작의 발을 일궈가고 있는 ‘예술가들’이다.

게재된 작품은 ‘부엌 없는 여자’ (김현주), ‘행복을 부탁해’ (박경화), ‘밤 이사’ (기정옥),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언어’ (김해숙), ‘모란이 필 때’ (정범중), ‘우리 이제 그만 말 하기로 해’ (정미경), ‘당직



지난 4월 광주전남소설가협회 회원들은 군산 채만식문학관으로 문학기행을 다녀왔다. <광주전남소설가협회 제공>

인터’ (조안영), ‘여름의 끝’ (김미용), ‘노대불’ (노성애), ‘환결’ (경반), ‘무풍 에어컨’ (공미숙), ‘얼굴’ (김성훈), ‘신사의 방문’ (손민두 작가) 등이다. 소설가인 이진 회장은 “회원 열세 분의 신작 단편 소설을 일독하는 건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즐거움이었다”며 “한 분 한 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선생님들이 가까이 새로운 작품을 써주셨기에 광주전남소설가협회 동인지 18집이 세상 빛을 보게 됐다”고 의미를 전했다.

그러면서 “일인 미디어의 범람과 넘치는 영상 매체들로 하여 문학의 토양이 갈수록 척박해져가는 시절, 그럼에도 여전히 소설 창작에 열정을 쏟는 회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마음 든든하다”며 “이 한 권의 책이 기갈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빌며 책이 나오기까지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호에는 기존과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트렌드에 맞게 표지를 새롭게 디자인했으며 말미에 작품 해설을 첨부한 것. 김주선 평론가가 세심하

게 읽고 깊이 있게 논구해 준 덕분에 각각의 작품이 생명력을 얻을 수 있었다.

김주선 평론가는 “단편 소설집을 읽는 일은 곧 여러 가지 삶의 단면들을 잠시 빌려살아보는 일이며 그렇게 빌려 산 삶은 다시 우리의 현실을 낫설게, 또 새롭게 비추게 된다”며 “소설은 결국 우리가 살지 못한 가능성을 살아보게 하고 이미 살아온 시간을 다르게 이해하도록 만드는 가장 오래된 훈련장이자 가장 은밀한 사유의 공간”이라고 말했다.

총무를 맡고 있는 김만성 소설가는 “올해는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역동적인 한 해였다”면서 “그럼에도 우리 작가들이 세상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을 견지하면서 자신만의 작품을 써서 함께 엮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동인지 작품집 발간을 기념하는 북 토크가 오는 28일(오후 5시) 파랑새안과 건물 카페 꿈마에서 펼쳐진다. 이번 북 토크에서는 동인지 참여 작가들의 작품 낭독과 참석한 작가들 간의 대화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의사, 작가, 인간으로서의 ‘소록도’

조안영 국립소록도병원 외과장, 수필집 ‘아오, 소록도’ 펴내

“환자와 의사로 만나 친구가 된 한 인물에게 바치는 추도사입니다. 그리고 시나브로 자만에 빠져있던 나에 대한 반성문이기도 하지요.”

의사인 조안영(사진) 의학박사는 이색적인 이력의 소유자다. 성형외과 전문의이자 신춘문예에 당선된 이후 장편소설을 펴냈으며, 감사원 모범사례로 선정돼 감사원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남들과는 다른 이력을 가졌다는 것은 남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삶과 세상을 바라본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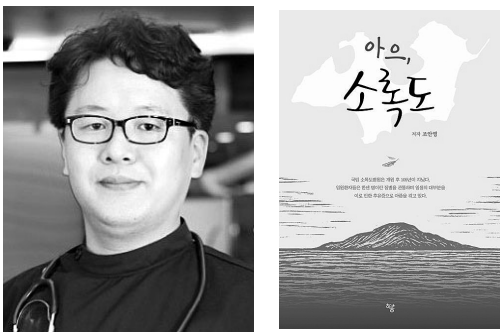
최근 조 작가가 소록도에서 근무하며 느꼈던 단상과 그곳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수필집 ‘아오, 소록도’ (하늘)를 펴냈다.

조 작가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국립소록도병원 외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제목부터 눈길을 끄는 책은 탄식과 회한, 성찰 등 복합적인 심리와 감정이 배어 있다. 의사이기 전, 작가이기 전, 한 인간으로서 소록도를 다층적으로 바라봤다는 의미일 것이다.

책을 발간하게 된 데 대해 그는 “‘한센병은 낮은’이라는 표어가 한때는 희망을 줬을지 모르지만 지금에 와서는 가혹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한센병이 나왔다고, 그들 마음속에 흉터를 모든 척하는 이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어 준 친구이자 환자를 떠나보내는 마음은 혼란스럽고 절망적이며 후회스럽고 슬프다”며 “그런 나의 마음을 꼭꼭 눌러놓고 다시 그의 삶과 마음이 어땠는지 생각하며 글을 썼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사로서 소록도에 오기 전과 이후의 4년의 시간은 많이 다르다고 했다. “배운 것도 많고 깨



우친 것도 많은데 그것의 대부분은 이곳의 환자로 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 깨우침의 시작이 “환자와 의사로 만나 친구가 된 그”에게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책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소록도 이야기보다 ‘사람’으로서 생존해 온 이들의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사실 의사와 관료들을 비롯해 시대상황에 따른 권력의 변화와 같은 소록도를 지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특정한 의도’로 소비된 측면이 있다.

조 작가는 “환자를 위해 했다는 일들, ‘당신들의 천국’이라 약속했던 일들을 반성하고 싶었다”며 “그런 반성들이 없어 관성적으로 관료주의적 의료로 진화되었고 결국 오늘의 의료사태를 촉발한(공공)의료의 왜곡에 이르렀다는 생각 때문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4년간 공공의료 현장에서 느낀 생각들을 스스로 레퍼런스가 돼 문제점과 해결책도 제안했다. 물론 정답일 수는 없다고 전제한다. 조 작가 말대로 “모든 것에 대한 반성이자 회한”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나주 북암리서 고려시대 건물터 확인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관아 추정 축대·배수로 발견

전남 나주에서 고려시대 지방 관청의 규모와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단서가 추가로 확인됐다.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는 나주 다시면 북암리 일원을 조사한 결과, 고려시대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터에서 축대와 배수로 흔적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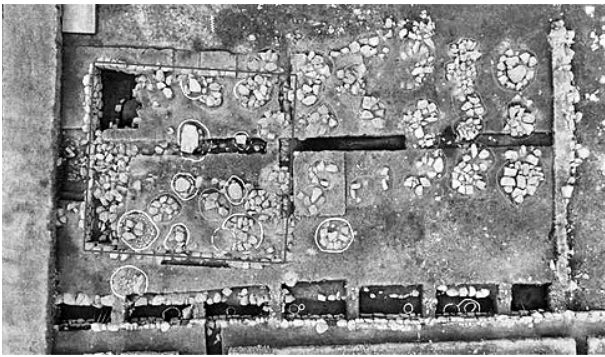
축대는 높이 쌓아 올린 대나 터를 뜻한다.

나주 북암리 일대는 영산강 유역의 고대 유적지 중 하나다.

연구소는 이 일대에서 ‘회진현관초’(會津縣官草)라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와 건물터를 찾은 바 있다. 회진현관초는 고려의 회진현 관아에서 쓴 기와라는 의미로 추정된다.

올해 조사에서는 관아로 추정되는 건물터의 세부 구조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3호 건물’로 명명한 건물터에서는 같은 자리에서 건물을 여러 차례 지은 것으로 보이는 흔적을 찾아냈다.



네모꼴 석축 유구와 건물터

건물터 아래에서는 네모난 형태의 유구(遺構·옛날 토목건축의 구조나 양식)를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지취)도 발견했다. 구조물은 0.8m 깊이로 땅을 파낸 뒤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3호 건물터 주변에서는 건물터의 공간을 구획하는 축대와 축대를 따라 설치한 배수로 흔적도 확인됐다. 동서 방향으로 44m 정도 이어지는 축대는 3단으로 쌓았으며, 축대를 따라 길게 이어진 석축 배수로가 함께 발견됐다.

/연합뉴스

재즈·국악으로 물드는 광주의 밤

광주문화재단, 6·20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11월의 목요콘서트’

재즈의 즉흥과 국악의 여운이 가을의 끝자락을 물들인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용·재단)은 6일과 오는 20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11월의 목요콘서트’를 펼친다. 이번 공연은 비밥 재즈와 퓨전국악, 두 가지 장르로 구성됐다.

먼저 6일에는 ‘아트플래닛’이 선보이는 ‘Bebop Re-Invention-비밥재즈의 재창조’가 무대에 오른다. 20세기 중반 뉴욕을 중심으로 발전한 ‘비밥’의 정수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빌 에반스의 ‘Waltz for Debby’, 아트 블래키

의 ‘Moanin’ 등 하드밥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깊이 있는 선율과 즉흥 연주의 묘미를 들려준다.

아트플래닛은 색소포니스트 박수용을 중심으로 결성된 재즈 그룹으로 비밥·하드밥의 예술적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실험적인 사운드로 자신들만의 색을 구축해왔다. 이번 공연에는 황태룡(테너 색소폰), 강운숙(피아노), 전사무엘(베이스), 윤영훈(드럼)이 함께해 세련된 호흡을 선보인다.

이어 20일에는 퓨전국악그룹 ‘디답돌’이 ‘도라지 산명’으로 무대를 재운다. 전통 민요 ‘도라지’를 모티브로 삼아 고전의 정서에 현대적 감성을 덧입힌 창작국악 공연으로, 대금·소금·해금 등 국악

기와 피아노·현악기의 선율이 어우러지며 서정적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디답돌은 문화예술을 매개로 사회공헌과 교육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는 단체다. 이번 공연에는 백진산·김시아(바이올린), 김주영(비올라), 이진·정형아(첼로), 박단우(피아노), 김혜정(대금), 김민재(소금), 문보라(해금), 김누리(타악)가 참여한다.

공연 정보는 광주문화재단·빛고을시민문화관 누리집, 디어마이광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단 빛고을시민문화탐 송선아 담당은 “11월의 목요콘서트는 재즈의 자유로움과 국악의 정서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무대”라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통해 일상 속에서 예술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람료 5000원, 수익금 전액 공연팀 전담.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디케이 주식회사

공 기 의 새 로 운 정 의

공 간 을 빛 내 는 선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삶.

모 든 순 간 을 더 건 강 하 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



